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2008년 1월~3월

가

가

[]

가

:

:

2 32

:

:

: 054) 435 - 1843

: 054) 434 - 4521

www.sdarmgc.org()

www.sdarm.or.kr

가?

가?

가?

!

“ ”

가?

“ ”

“ ”-

, 415, 416.

가

가 가

가

?

가

가

.”- , 1886.9.16.

“ 가 (18:6).

“

가 .”- , 550.

가

가

가! 가

’ 가



희망봉 대회는 케이프 타운 시 북쪽 30km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흑백과 아시아 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약 500만이 살고 있다. 원주민들에 추가하여 전쟁의 와중에 있는 이웃 국가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정주하러 온다.

케이프 타운은 매월 수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남아프리카 관광객들의 매력을 주는 테이블 산과 케이프 포인트, 로벤섬 등이 자연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유명하다.

개혁기별은 1996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사한 선교사를 통하여 이 도시에 소개되었다.

그후에 부유한 한 형제가 케이프타운 내에 있는 크라이폰테인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땅을 기증하고 이곳을 주님의 사업을 위한 본부로 헌납했다. 이곳이 교회와 사무실로 수년간 사용되어왔다. 때때로 영혼의 원수는 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사업은 지금 수년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부흥이 되어 왔고 안식일 성경교과와 개혁지남을 연구한 재림신자들 가운데 많은 구도자들이 각성을 일으키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도전으로 500만의 인구와 이 도시를 자주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들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의 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끝에 있는 지역의 영혼들에 도달할 우리의 선교활동을 향상시키는 물론 이 여러 부분에 노후된 장비들을 쇄신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또한 우리 대회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배할 다른 장소들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번 안식일에 후한 연금을 드리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현금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빌며 감사사를 드린다.

-케이프 타운의 형제자매들로부터-

“ 가 가 (3:20). ”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시기를 구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을 들어오시게 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308.

참조할 연구교재: 우리의 높은 부르심, 35, 287.

12월 30일

1. ! 가? 7:24.

“우리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케 하는 겸손한 길로 인도하신다.” - 믿음으로 살리라, 314.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이 아직까지 알지 못한 최대의 교사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사상과 원칙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매일 그는 그에게 위탁된 신뢰에 대한 더욱 큰 가치가 있도록 배워야 한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되어야 하며 그의 품성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영문시조, 1896.12.24.

가? 29:11 - 13; 11:4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교회증언 1권, 121.

2.

가. 가 가?
38:1-7; 40:28.

가 가 가?
33:18, 19; 34:5-8;
가?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말한다.” -복음 사역자, 417.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이 큰 재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 대리자가 의회에서 아무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토의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투표권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르나 그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왕 중 왕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몸을 굽히신다.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통회하는 마음에서 드린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창한 말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향연과 함께 드러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도 하늘 의회에서 어울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부흥시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6.23.

가?
10:39.

“구세주를 따르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할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모든 이기심을 내어 쫓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 있겠는가? 그대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수치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대는 그를 봉사하는 데 자신을 즐겨 바치고자 하는가? 또는 그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나 즐겨 행하고자 스스로 준비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자신을 버리고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는 그대의 동료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경고의 말을 전할 것인가? 그대는 그대의 동료들 안전할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획들 중 일부를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높은 부르심, 287.

3.

가. 가? 8:32.

가 가?
7:24-27

가 가? 4:6;
2:13.

“그리스도 당시에는 청년들의 종교적 지도를 위하여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마을이나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교훈은 형식화되어 있었다. 유전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참된 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행 17:27)하도록 인도할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에 그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외양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시대의 소망, 69.

가?
12:6; 119:98-100.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그들 앞에는 진리의 넓은 평원과 능력의 큰 자원(資源)이 놓여 있다. 영광스러운 사물들이 계시되어야 한다. 그들이 성경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한 특권과 의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65.

4.

가.

가? 3:20.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의 음성이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이어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 가고 확신은 사멸해 버린다. 마음은 무디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원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 앞에 그처럼 많은 쓰레기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저들 형제들과 자신 사이에 제거하여야 할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악한 성질과 교만을, 탐심과 여러 가지 악한 특성들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막는다. 저들이 문을 열어 구세주를 환영하여 모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만 한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52.

가

가? 91:14 - 16; 119:103, 104; 143:8.

가? 46:10.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 46:10)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돌리울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 *시대의 소망*, 363.

5.

가.

19:9 - 12.

가?

가? 19:13; 9:23.

“그리스도 앞에 놓인 기쁨, 곧 그로 하여금 희생과 고통을 참게 한 기쁨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보는 기쁨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의욕을 돋구는 격려가 되어야 한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깨닫는 자들은 지대한 인간의 필요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서운 운명의 그늘 아래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도덕적·영적 결핍 - 그것에 비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 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저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개인들에게처럼 가정들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이 적용된다.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잘 교육을 받아 저희가 줄 수 있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가 그들의 감화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가정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세상의 어두운 지방으로 가서 영적 두려움에 싸여 있는 그 곳 사람들을 위하여 현명하고 끈기 있게 일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부르심에 응하는 데는 자아 희생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영혼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세속적 이익과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는 즐거이 오지에서 모험을 하고 고생과 공핍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를 알리기 위하여 그 같은 고생을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 *선지자와 왕*, 172, 173.

5:25

1. 이 교훈 속에 있는 “초청”은 왜 재판관의 소환장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가?
2. 무엇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할 가치가 있게 하는가?
3. 우리가 교육받은 방법은 우리의 의무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4. 왜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외심과 교통의 주요한 관점을 무엇이 침묵시키는가?
5.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 가
 (34:27).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사도행적, 284.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2권, 604-608.

1월 6일

1.

가. 가 가 가? 34:27.
가? 6:6, 9.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의롭고 자비롭게 거래함으로 그 손은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뇌물과 부패하고 기만적인 모든 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 될 것이다. 고상한 목적으로 향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12.

가? 4:4;
6:56 - 58, 63.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동의할 한 가지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진리를 하나님의 떡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만일 사람이 먹는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신체적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산 떡을 먹어야 한다.” -원고모음 11권, 34.

2.

가. 가?
4:12.

“하나님의 말씀을 페이지마다 순종하라는 명령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영문시조, 1891.7.27.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혼에게로 빛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심령에 품게 되면 학도에게 무한한 값인 지식의 보물을 준다. 이 고상하게 하는 원칙은 정직, 진실함과 절제, 성실로 품성에 인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1.

가? 5:17; 1:22 - 25.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391.

가?
28:9, 14 ().

“세상과 일치되기 위한 편의와 방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모든 자들은 종교적 진리 대신에 지독한 이단설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23.

“그러므로 이제 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바이다. 화잇 자매가 행동했다던지 말하고 기록했다던지 하는 것에 대한 불분명한 소문을 믿지 말라. 만일 그대들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계시한 것을 알고자 하면, 그의 출판물들을 읽어라. 그가 기록하지 않은 것에 관한 어떤 점에 흥미가 있으면,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소문들을 열광적으로 움켜쥐고 퍼뜨리지 말라.” -교회증언 5권, 696.

3. 가

가. 가? 119:116, 133.

가?

119:16, 17, 140, 162; 15:16.

“성경의 장을 어찌다 읽고 성경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앞에 놓여진 고상한 일을 위하여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신령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호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 이와 같이 하는 이들은 마음이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5.

가

가? 2:13.

“심령에 평범한 작품들을 다루고 영감 받지 못한 인간의 기록들을 먹이면 난장이가 되고 가치가 없게 된다. …깨달음은 무의식중에 공급되는 잘 알려진 사물들의 이해에 달려 있으며 유한한 사물들을 사색하면 깨닫는 힘은 약해지고, 그 능력은 위축되고 얼마 후에는 확장될 수 없게 된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5.

가? 119:18,

169.

“왜 이 [성경] — 이 귀중한 보화가 보배로운 친구로서 여겨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생애의 바다를 건너감에 있어서 도표가 되며 또 이것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을 보여준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책처럼 마음을 계발하고 고상하게 하여주는 책은 다시없다. 계시의 엄청난 진리들을 접촉하고 있는 자들의 모든 기능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없다. 이 큰 사상을 헤아리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마음을 넓혀준다. 우리들은 진리의 광산을 깊이 헤치고 귀중한 보화들을 모아서 이것으로써 영혼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참길과 안전한 죽음을 배울 수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1.

4.

가. 가 가? 8:20.

“성경은 원수의 공격을 무찌르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령의 검이다. 이것은 모든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참되게 인도하여 주는 유일의 안내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상담자와, 참 진리로서 저들의 길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영광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떤 길로 행하여야 할 것을 보여 줄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1.

28:9, 10, 13.

“구절에 구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남녀들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을 볼 수 있도록 생명과 평안과 건강의 도(道)에 대한 지식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킨 소돔과 홍수 이전 세상에 있었던 타락시키는 관습들과 행습들을 끊어버리도록 인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46.

가?

“하나님께서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그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그대들 중에 교회증언에 무슨 말씀이 들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대들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대들은 교회증언이 필요 없었으리라.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영감의 말씀으로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순결하고 고상한 가르침으로 그대들의 삶을 풀 지워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기에 그분께서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언으로 그대들과 연결되기를 구하신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회증언* 2권, 605.

5.

가. 가 가? 3:3; 7:2, 3.

가 가? 31:31 - 33; 8:10, 11; 10:16, 17.

가 가? 3:3.

“믿지 않는 사회에서 하나의 가정이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 산 편지가 되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사명은 두려운 책임을 내포한다.” - 재림신도의 가정, 31, 32.

가? 102:16 - 18.

가? 3:12.

“유예기간에 살고 있는 이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빛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동류가 되도록 우리를 적합하게 해주는 품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것이니 이것이 참교육이다. 이 교육이 이생에서 다른 이들과 우리 자신에서 축복을 가져오며 불멸의 부로 불사의 생명으로 우리의 장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5.

5:31

1. 성경은 어떻게 가장 엄밀한 법적 서류에 비교되는가?
2.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가?
3. 모방할 가치가 있는 다윗과 예레미야에 의해 주어진 한 가지 좋은 재능을 말하라.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위한 예언의 신의 증언들을 왜 주셨는가?
5. 주께서 산 편지가 되도록 하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라.

“ 가 가 (11:3).

“하나님의 천연계의 책 속에는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 - 원고모음 2권, 307.

참조할 연구교재: 새자녀 지도법, 53-60.

1.

가. 가? 9:6.

“계곡의 장엄함과 엄장하고 거대하며 갈라진 바위 가운데 미(美)가 있다.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높은 산들 가운데 장엄함이 있다. 우아한 잎을 가진 큰 나무들이 있으며 풀의 가느다란 싹과 피는 꽃봉오리와 만발한 꽃과 삼림의 나무들과 모든 생물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린다. 우리 몸의 기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자연의 열려진 책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주님께 관한 가장 귀중한 공과들을 배울 수 있다.

“이 연구에 있어서 마음은 넓어지고 고상하고 향상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존엄성에 대하여 더욱더 알고자 갈망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경과 두려움의 느낌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진실과 전적인 신뢰심을 갖게 된다. 내가 그의 기이한 작품과 그분의 권능을 바라볼 때에 나는 본성적으로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 8:4)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자주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이야기하면서 하늘 본향, 곧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에 대하여는 왜 그리 말하지 아니하는가? 이 하늘나라는 이 지상에 어느 도시나 나라보다 더 중요하므로 우리는 더 좋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자. 왜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으며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는가? 그분께서 이 만상을 만드신 그분의 창조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계획하셨다. 이러한 사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며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사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고상하게 할 것이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며 우리의 창조주께 찬양을 돌리게 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0.

2.

가. 가? 19:1 - 3;
143:5, 6.

“위대한 건축가 되시는 분께서 천연적 풍경을 형성하시고 적응시킴으로 이것이 사람의 지적 또는 도덕적 품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은 마음과 도덕을 육성시킬 하나님의 학교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마음은 무한하신 자의 장엄한 업적을 나타내는 학문을 위한 거대한 분야를 찾을 수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2.

“우리들은 옛날 큰 성곽과 비슷한 바위로 된 홍벽을 가지고 웅장한 아름다움 가운데서 있는 층층으로 된 높은 산들을 바라보았다. 이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진노를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홍수의 힘찬 격동으로 말미암아 쌓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써 강한 파도, 곧 곳곳이 선 파도와 같이 저들의 가장 교만한 물결 가운데서 멈춰진 것이다. 이 높다란 산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는 이러한 바위로 된 요새를 다스리신다. 광산의 부함도 또한 그의 것이요 땅의 깊은 장소들도 그의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기 원하거든 그대의 뿔이 없어지더라도 그대의 주위를 돌아보라. 그분은 그가 창조하신 작품을 통하여 그대의 영혼에 감화를 끼치며 그대의 오관에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대의 마음에 이러한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하면 자연은 그대에게 열려진 책이 되어 익숙한 사물을 통하여 거룩한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높다란 나무들은 무관심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피어나는 꽃, 섬세한 엽맥을 가진 모든 잎사귀들은 위대한 예술가의 무한한 솜씨를 증거한다. 멀리 높게 솟은 산들과 웅장한 바위들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들은 침묵 가운데서 높은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웅변을 이야기 한다. 즉 예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다. 그분의 이름이야말로 얼마나한 존경과 두려움으로써 고취되어야 하겠는가!”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1.

가? 121:1, 2.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려 있게 하고,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활동하도록 붙드는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 *교육*, 132.

3.

가. 가 .
2:2; 36:6; 125:1, 2.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시며, 그분의 백성의 피난처요, 폭풍우가운데서 덮개가 되시고, 타는 불꽃과 같은 더위를 막는 그늘이 되신다. 그분의 약속은 록키산보다 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더 든든하여 영원한 언덕과 같다. 산이 떠나가고 언덕은 옮길지라도 그분의 자비는 옮기지 않고 그분의 평화의 언약은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 록키 산처럼 굳게 서서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바라본다면, 이 불모의 산은 그들에게 하늘을 지적해 줄 것이며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1.

가?

“바위들은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상의 귀중한 사물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바위와 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홍수로써 지상의 악인들을 멸망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2.

가

가? 38:16 - 18.

가? 12:7 - 10.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고(太古)적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양(大洋)의 파도 소리에서 숲 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色調)로써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준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펼터이는 나무들과, 우아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리켜 준다. 갈색 대지(大地) 위에 깔려 있는 싱그러운 풀들은 당신의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 준다. 바다의 동굴들과 땅의 심연(深淵)은 그분의 보화들을 드러내 준다. 진주를 바다 속에, 자수정(紫水晶)과 귀감람석(貴橄欖石)을 바위 속에 두신 하나님은 미(美)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 준다. 땅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하늘을 밝혀 주는 밝은 광채와 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 *치료봉사*, 411, 412.

4.
가. 가? 65:5, 6;
90:2; 11:3.

“높이 솟은 산들과 바위가 많은 지역에 내려오는 빠르고 요란한 물줄기들을 가진 깊은 산악의 협곡들, 바위에 부딪쳐 너울처럼 물보라 치며 쪼개지는 물결들이 이 경치를 한층 더 심히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든다.

“산에는 창조자께서 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부여한 축복들의 보화가 포함되어 있다. 위대한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땅의 표면과 산들과 평야들과 계곡들 가운데 있는 다양성이다. 우리의 지상으로부터 바위와 산들과 역센 협곡들과 요란하고 급히 흐르는 하천과 산의 절벽을 없이하고자 하는 자들은, 저들의 감각이 너무나 제한되어 하나님의 위엄을 이해할 수 없다.

“위대하신 건축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높은 산들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일기(日氣)의 변화에 미치는 저들의 영향은 이 세상에 축복이 된다. 이것들은 구름들로부터 풍부한 습기를 끌어들이고 산맥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저수지로써 대양에 물을 공급한다. 이것들은 원천들과 작은 시내와 내와 강들의 근원들이다. 이것들은 비와 눈의 모양으로써 수증기를 대기권에 받아들여 이 땅의 메마른 평야에 이것들을 전달한다. 지상에 모든 샘플에서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내어보내는 이러한 불규칙한 산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산들을 바라보는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나의 마음은 인간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는 분께 대한 찬미로 드높여진다. 만일 땅이 획일적인 모양으로 꾸며져 있었다면 썩은 습지에 불과했을 것이다.” - 원고모음 2권, 306, 307.

가? 17:20, 21.

5.
가. 가? 6:28, 29.

“우리의 위대하신 예술가께서는 들의 생명이 없는 꽃들에게 우리의 주의를 이끌어 한 꽃이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깔과 여러 가지 신기한 색소를 지적하신다...

“우리의 주님이신 창조주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큰 사물에는 물론이요, 조그마한 꽃에도 똑같은 돌보심과 지혜와 재간을 사용하신다. 가장 작은 꽃 가운데도 인간의 예술이 묘사할 수 없는 미와 완전함을 볼 수 있다. 장미의 가지각색의 섬세한 그물 무늬며 하늘의 별들에서도 위대한 대 예술가의 화법을 볼 수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4.

가? 12:4-6;
12:14-18, 22.

“우리들은 셀 수 없는 식물들과 꽃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모든 꽃은 모양과 색깔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어떤 것들은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은 항상 향기를 낸다.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저들 자신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정원의 꽃들이 다양한 것처럼 가지각색의 품성의 방들이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4.

5:38

1. 옥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왜 우리의 영성에 중요한가?
2. 언덕과 산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 반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몇가지 재미있는 교훈들을 말하라.
4. 산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고안으로부터 무슨 환경적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가?
5. 하나님께서는 꽃들의 다양함으로부터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 가 가
 (50:5).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화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정로의 계단, 93.

참조할 연구교재: SDA 선교의 역사적 고찰, 189.

1월 20일

1.
 가. 가? 33:5; 107:4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되는 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성신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 또는 날마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환(變換)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귀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정로의 계단, 87.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인 학교이며, 이곳에서 그분은 생애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언제나 이끄실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444.

가 가?
 1:15; 13:13, 16.

“우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어리석음을 조장하는 인간의 지혜로 행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사람의 해석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성경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14, 415.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아름다움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이 말씀을 성취 하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0.2.6.

2.

가. 가? 5:8.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 마음과 전력을 이 일에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가 다른 근원들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악용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마음의 청결은 모든 섭리를 통하여 참된 교육의 각 국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영적지식의 첫 번째 섬광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14, 415.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참된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여호와의 안에 있는 순결함과 사랑을 반사할 것이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계명을 자원하여 지킬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구성한다.” - 청년지도자, 1894.7.26.

가? 3:2, 3;
 9:14.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깨끗하고 영적인 빛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각 신자의 영혼에게 구원이 된다. 영혼이 자신에 대해 죽기로 결정하자마자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더 강하게 자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품성이 형성된다.” - 원교모음 21권, 369.

“주께서 ‘진진하라’고 말씀하실 때 서서 어려움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속히 순종해야 한다. 만일 주를 섬기는 자들이 불신을 말하는 것을 그치고 어려움들을 확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진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인간의 유한한 노력과 협력하실 것이며 이와 같이 한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11.1.

3.

가. 가 가? 12:14-21.

“[부자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 맡겨서 그분의 청지기로 삼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구호물자를 나눠 주는 사람으로써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건만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생하는 자와, 환난을 당한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의 물질로 도와주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 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다.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시 68:10). 주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시므로써 궁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나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에 마음 문을 닫았다.” - *실물교훈*, 256.

가? 3:8; 1:4-10.

“이기적으로 돈을 거머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을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 봉헌되어야 했던 것인데 거머쥐고 있었다면 그것이 무모한 아들에게 위임되어 그가 낭비할 수도 있다. 헛된 마음의 자랑인 멋진 말이 외양간에서 죽어 있을 수도 있다. 때때로 소가 죽을 수도 있으며 과일이나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 그분의 청지기에 빌려 주신 돈을 흠을 흠을 버릴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의무를 등한히 한 것을 상기시켜 줄 만한 손실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우는 더 희망이 없을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661, 662.

가? 3:9, 10; 3:9, 10.

4.

가. 가? 30:21; 42:2, 3.

“인류 가족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물이 된다. 사람은 사단의 시험의 노리개가 되도록 버려둔바 되지 않았다. 모든 하늘은 세상의 주민들이 신령한 지도를 알지 못하고 흑암의 밤중에 남아있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활발히 종사하고 있다.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한 눈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감시하고 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사람의 자녀들의 필요에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감으로 된 음성은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외치신다.” - *오늘의 나의 생애*, 88.

가?

55:2; 59:1, 2.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 품성을 통하여 그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소유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께서 보내신 빛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있다.” - *1888 자료집*, 587.

가? 50:4, 5.

가? 50:6, 7; 26:67.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 *실물교훈*, 139.

가? 8:18; 1:7.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 *사도행적*, 576.

5. 가

가. 가
가? 26:6-11, 14, 15.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진정으로 자아를 부인할 것이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시에 자기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실제적인 경건을 명백히 표시하는 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진리에 대하여 언제나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 명백한 진리는 그를 분리시켰으며 그는 그의 개인적 노력으로써 협력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업에 대하여 흠을 찾고 그리스도의 명백한 진리를 비난하게 되었다. 그는 품성의 변화함을 받는 대신에 자신을 사랑함과 자존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하고 있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87.

9:23. 가 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극기를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 - *사도행적*, 576, 577.

5:45

1.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네 가지 방법인가?
2. 더 큰 영적 통찰력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는가?
3.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적은 음성이거나 그분의 섭리에 의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4.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5. 갈바리의 장면이 왜 우리의 매일의 결정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가난한 사람에 관하여 특별한 명령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 중 하나를 생각해 보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신 15:7, 8).

우리는 아무나 가리지 않고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요청을 받지 않으나 “매우 가난한 사람”을 게을리 할 수 없다.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 였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힘에 겨운 수고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여행 중에서도 그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을 부양하고 매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는 끊임없는 근면과 가장 철저한 절약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에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모본을 지적할 수 있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 *사도행적*, 395, 396.

도움을 구하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매우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기란 쉬운 과업이 아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가운데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 앞에 대두되는 각 경우를 연구하고 질병이나 실직상태에 있거나 자연계의 재난으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주께서 돕는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째 안식일 연금이 수합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매우 가난한 사람”을 위해 후한 연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구호봉사부-

“ 가 가
”(16:2).

“각종 은사나 재능이나 빛의 섬광은 신령한 위탁으로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4.2.27.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325-365.

1월 27일

1.

가. 가 가?
가? 3:16, 17; 5:6-10.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은 계산을 초월한 것이며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의 가치를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선물의 위대함은 영원을 통하여 시간이 다할 때까지 찬양과 감사의 주제를 사람에게 공급한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 혼과 몸과 힘을 요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도 완전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물로 바라보고 우리는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칠 수 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8.

가? 14:10(), 12; 1:17.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그대들은 모든 재능을 바쳐야 하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방식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활동하고 일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 -영문시조, 1893.5.29.

“각 사람은 자신에게 위탁된 재능들을 사용한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회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318.

2.

가. 가?
가? 16:1, 2.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향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재능들을 부여하셨다. 만일 바르게 사용하면 이 재능들은 주신 분께 영광을 반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사들은 악용되었다. 그리하여 축복이 되는 대신에 저주가 되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8.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재능들을 향상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며, 가능하면 가장 높은 표준에까지 도달해야 하며 이러한 감화가 다른 이들에게 끼쳐짐으로써 저들은 우리의 모범적인 발자국을 따르게 된다. 우리는 사회에 나 친한 친구에게나 나의 행동 노선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 품성에 대한 사상이 고귀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90.

“왜 그대는 그렇게 수동적인가? 왜 그대는 그렇게 적게 행하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최선의 관심을 희생하고 자신을 섬김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907.12.5.

“하나님의 백성의 재능은 이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사용 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494.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의 삼분지 일만 사용한다고 하면 삼분지 이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일하는 것이다.” -교회증언 6권, 439.

가? 13:5, 6.

“모든 힘과 재능은 그분을 섬기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할 달란트이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노력하여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욱 뛰어난 힘과 지능을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은 자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변리와 함께 당신의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증식할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들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영광이나 기쁨이나 자아만족을 구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능력을 주신 분을 모욕하고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132.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큰 빛을 가졌다. 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각 개인의 책임감을 깨닫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모든 은사와 재능이 사용될 것이다.” -태평양 연합회 기록자, 1902.8.28.

3.

가. 가 가
가? 21:20 - 22.

“우리가 하여야 할 개인적 사업, 개인적 책임, 빌려 준 이에게 대한 개인적인 계산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개인적 문제인 까닭이다… 다른 사람의 경건과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들의 노력은 결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등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셨다. 즉,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세속적 일이 아니요 그의 왕국을 건설하고 영혼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져다주는 이 일이 첫째 되고 제일 높은 우리의 의무로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요구하신다. 그는 우리들이 찾아 계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능을 부여하고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의무들은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3.

가?

10:12.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본을 따라감에 대하여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흠없고 정결하고 부패한 것이 없는 유일의 완전한 모본으로써 들리우신 까닭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3.

“진리 가운데서 여러 해 동안 유리한 경험을 쌓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난 유망한 이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향락과 오락을 추구함은 어쩔이요? 힘이 자라고 자라서 강건하여지는 대신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저들의 영적 생애를 잃어버린다. 재능은 결코 경건을 대신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우리들을 하나님께의 충애를 받도록 추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8.

“진리의 지식은 너무나 귀중하여 쌓아두거나 땅에 파묻어 둘 수가 없다.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양중 가운데 한 양중이라도 충실하게 사용하여야만 한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90.

가? 17:18.

“우리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건설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3.

4.

가. 가 가
가? 9:4; 5:23.

“하늘의 기록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게으른 종들이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을지라도 만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열렬하고 활동적인 일꾼들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저들의 모본으로써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그 게으른 종은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그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내대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위험한 원수들은 없다. 공공연한 이단자는 덜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찢레와 가시인 그의 인격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2.

가? 8:36 - 38.

“하늘의 방문객은 그대의 문에 서서 계시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을 쌓고 있다. 예수는 그대에게 주신 번영을 통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신다. 이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려 함이다. 그대의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하듯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겠는가?” - *리뷰 앤드 해럴드*, 1886.11.2.

“우리는 심오한 사상과 엄숙한 고찰이 있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이 이 만물의 종말이 될 것인가? 태양 아래 무슨 육익한 일이 있는가?” - *리뷰 앤드 해럴드*, 1894.3.6.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 목사들이나 평신도들 양편에 그들의 책임감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부담감을 어떻게 느끼도록 할 수 있는가? 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각성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에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수고하는 자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사업은 감화력을 갖고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타락한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 빛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 - *호주 연합회 총회 기록*, 1902.8.1.

5.

가. 가? 24:32, 33.

“나는 오실 왕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나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절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언의 확실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멸망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르게 방향지워진 노력으로 나에게 위탁된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뜻뜻미지근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악한 세상과 섞이면서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 보다는 크게 자만하고 내 자신의 편이와 안락을 더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과 재능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 세계 대총회 회보, 1897.4.1.

“남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확신해야 할 때가 있어야 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4.9.

가? 6:14.

“각 재능이 모본자를 모방하는 일에 행사되도록 외치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은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살라고 호소하신다. 영생을 위하여 평생의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더 이상 반신반의하지 말라. 우리 각 사람에게에는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 있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로 빛의 광선들을 모으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 영문시조, 1892.11.28.

5:52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무슨 모본을 보이셨는가?
2. 무슨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오용하고 있는가?
3. 왜 경쟁심은 그리스도인 경험 속에서 있을 자리가 없는가?
4.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경쟁은 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는가?
5.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숙고할 때 우리에게 위탁하신 재능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 가 가 (3:13, 14).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 사도행적, 210.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262-271.

1.

가. 가? 13:34. 가? 13:35 - 3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 주신다. 그분은 ‘각각 사무를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 실물교훈, 326, 327.

가 가? 37:7.

“하나님께서서는 달란트를 다만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의 봉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선물들을 위탁하시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달란트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함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탁물을 소유한 자로써 그것을 적합하게 사용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잘못 사용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89.

2.

가. 가 가? 10:38,
39; 16:25.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우리의 부양비가 크게 손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의 재능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것은 배가되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18.

“주님께서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기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모든 가능한 일에 그로 하여금 돕도록 하셨다. 이 거룩하신 은혜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들은 거의 천사들의 탁월함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8.

가? 116:12 - 14.

“하늘이 인가한 것을 사람에게 가져가거나 키우도록 맡겨진 금액이 아니며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또한 사랑으로 복종하는 봉사를 함으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기쁨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종은 이 세상에서도 맞볼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89.

가 가? 2:4.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극기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안일하고 쉬운 일만을 찾는 자들은 개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목적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으시다. 남김없이 헌신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목사들은 그들의 특별한 보호를 구하는 어떤 특정된 장소가 되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런 교회들을 맴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들이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열심을 느끼지 않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짐을 지고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열렬히 수고해야 한다. 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박으면서 그들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하며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영혼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호주 연합회 총회 기록*, 1902.8.1.

3.

가. 가? 9:4;
3:13, 14.

“하나님께서 남녀들이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경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로 전진의 신호를 간직하게 하고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꾸물거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지역들로부터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에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강권하는 음성들이 들려올 것이다. 목사와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섭리의 바위가 돌아갈 때마다 제공된 모든 기회와 특권들을 깨닫고 민첩하게 행하라.” - *호주 연합회 총회 기록*, 1902.8.1.

가? 5:8 - 13.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엄숙한 기별을 가진 자들의 생애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높은 표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조화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편이 되고자 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세속적인 자들의 생애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유혹자들은 아침하는 말과 뇌물을 가지고 다가와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원칙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된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 곁에 가까이 와 있고,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된다. 그들은 진실한 증인으로서 진리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모든 선물에도 불구하고 남녀들로 하여금 진리와 공의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게 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그들이 치러야 할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다.” - *교회증언* 9권, 23, 24.

4. 가?

가. 가? 3:13; 10:24.

“우리가 착수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라. 이 일이 영혼들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바쁘게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주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무와 돌과 그루터기를 바쁘게 주워 모으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다 불탈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의무의 자리가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할 질문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무가 지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이 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아울러 해야 되든지 간에 충실하게 우리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정하신 것으로서 사람들은 각각 그의 직책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있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 각자들에게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주의깊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전적으로 영적사물에 국한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의무를 신실히 감당하여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동원되기 전에 그가 추구하는 일들은 그 일 자체가 갖고 있지 않는 거룩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행동은 헌신한 사람의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시간이란 달란트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20.

가 가? 20:27, 28; 22:27.

“다른 직업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지적 직업(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려는 야망을 갖는 이가 많다. 농부나 직공, 혹은 간호원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 목사나 변호사, 의사 같은 부적당한 지위를 차지한다. 반면에, 어떤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원기와 근면과 인내가 부족한 탓으로 안일한 지위에서 자족하는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등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30년 동안의 생애를 평범한 기계적 생활로 지내셨으나, 이 기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연구하고, 당신의 감화가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셨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교육, 267, 268.

5. 가? 2:21 - 23; 2:10; 3:10.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상들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따를 인간의 표준을 우리의 모본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하며 저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끈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7.12.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그들 앞에 놓인 고상한 이상에 도달할 수 있으며 드디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골 2:10)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64.

가 가? 119:99. 가? 1:3 - 6.

“인간의 학문이 최고로 간주되지만 그가 하늘 왕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더욱 높은 교육이 되지는 못한다. 세상의 학식있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지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바울이 그의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지적 명장들이 가지지 못한 한 종류의 교육을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다. [엡 1:3-6 인용됨].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도달할 수가 있다. 원하는 자는 모두 다 경건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에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높이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을 위해서 치루신 무한하신 희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인성의 팔이 인간 가족들을 안으시고 그분의 신성의 팔이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고 계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9.7.18.

6:00

- 1.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무슨 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2. 세상은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듣고 왜 충격을 받는가?
3. 세상은 왜 아직도 셋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환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가?
4.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어떤 지침이 주어졌는가?
5. 우리 앞에 놓여진 높은 이상을 묘사하라.

“ (1:13).

“정신적 기능들을 연단하고 지배하라.”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9.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123-134.

2월 10일

1.

가. 가 가?
6:20, 21.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께서 비쳐주신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이며, 그분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그들의 위대하고, 총명한 마음의 주의를 끝마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너무 높아서 인간의 지성이 전혀 미치지 못할 수준에 있다.

“복음 기별은 참 과학이나 인간의 학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참 지혜는 세상 지혜가 깨달은 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숨은 지혜이며 이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은 지혜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64.

가 가? 55:1-3.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지는 주제의 위대성과 단순하나 위엄 있는 말씀, 그리고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즉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다른 어떤 연구도 성경의 훌륭한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 능력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될 때, 우리의 지능은 비로소 신장되고 높아진다.” - *교육*, 124.

2. 가?

가. 가? 12:12.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지성과 더 영리한 분별력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는 계속적으로 정신을 넓히고 지성을 강화시켜 준다. 무게 있고 중요한 진리들을 붙잡고 깨닫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품성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모든 능력에 활기를 주는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 일시적인 것들과 감각적인 것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평범한 문제들만을 취급할 때 사람의 정신은 왜소해지고 연약해진다. 이해력은 계속적으로 친숙해져 있는 주제들의 수준으로 점차 접근하게 된다. 정신은 천연계와 거룩한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능력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 뻗어나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발휘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위축되고 그 힘이 상실된다.

“그러나 사실과 이론들을 잘 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가 별로 없다. 주로 책을 통해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경험적인 지식에 관한 한 뜻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위험이 있다.” - *교회증언* 4권, 545, 546.

가? 2:13.

“동정심은 친밀하게 알 때 생겨나며, 동정심은 또한 효과적 봉사의 원천이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지경을 넘어’ 무수히 많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희생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들과 그 사람들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방면의 지식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상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의 공훈을 깊이 연구하게 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모팻, 리빙스턴, 캐리 같은 인물의 일생과, 오늘날 갈수록 분명해지는 선교 활동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생애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일단 교실을 나오면 거의 생각도 하지 않는 이름들과 이론들을 나열해서 그들의 기억력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모든 나라들을 선교 활동의 대상으로 연구하게 하고 그 나라의 주민들과 그들의 필요를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교육*, 269.

3.

가. 가? 4:18.

“세상의 지혜자가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붙잡고 표면적인 것만 거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돌이킨 자들은 깊은 곳을 꿰뚫어서 영원에 이르며 영속될 지식과 부요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사람, 그대의 마음에 거룩한 진리의 원칙들을 지니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보응의 불로써 도덕적 부패함이 불원하여 깨끗이 소멸될 세상의 비천함, 허영, 그리고 부정직으로써, 그의 생애를 더럽히지 않는 자는 그의 기록이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요, 도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순결한 천사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이가 될 것이다. 이로써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80.

가? 33:7-9.

“기회가 주어지는 한, 진리의 빛을 받은 각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과 똑같은 책임아래 놓여있다. [겔 33:7-9 인용됨.]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고서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을 말해 주기 전에 그 심판이 그에게 내리기를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임한 빛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여호와와 그의 큰 날이 ‘바로 문 밖에’ 당도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읽고 깨달아야 한다.” - *교회증언 9권*, 19, 20.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만 진리를 전하거나 문서를 보급함으로써만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값싼 품성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품성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쓰여진 모든 책들이 거룩한 생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바를 믿지 않고 교회가 생활하는 바를 믿는다.” - *교회증언 9권*, 21.

4.

가. 가? 17:15-17; 18:1; 2:2.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히브리 교육에도 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유리한 조건들이 그로 하여금 최선의 표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다. 이 모든 과학적, 문학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현재와 영원을 위해서 유익한 지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는 높은 표준에 이를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설교를 할 때 웅변적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 왕들 앞과 아테네의 위대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만한 사람으로는 바울이 적임자였다. 그가 쌓은 지식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더러는 도움이 된 때도 있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그가 바라던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그가 반성하고 난 다음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기를 세상 지혜보다 우월한 그 무엇이 그에게 와야 한다고 하셨다. 그는 보다 차원이 높은 근원에서 능력을 받아야 했다.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하는 일에 들어오셔야 하고 모든 영적인 발달을 성화시켜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9.7.18.

가? 2:1, 2.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교회증언 9권*, 19.

5.

가. 가? 1:13-16; 4:13.

“[하나님께서] 그대가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열망과 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행동에 대한 고상한 목적들을 갖기 원하신다...

“우리의 이 세상 사업은 능히 검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정밀함과 충실함으로써 수행되었는가?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대하여 송사할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록은 하늘에 올라가 우리가 다시 기록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는 노력이 사람에게 의하여 보이거나, 환영받거나 환영받지 못하거나, 위대하신 감독자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라도, 종교적이거나 세상일의 봉사이거나 간에 게으르거나 되는 대로 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그분께 받으시는 봉사가 될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편단심으로 그의 목적에 맞게, 그의 원칙에 강하게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라는 사상으로 일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69.

가? 10:5; 2:5-8.

“자제력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자제력은 그대의 온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그대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써 영혼의 구석구석과 마음의 방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며 또 채우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뜻은 거룩하신 분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뜻은 그분의 정신과 뜻과 하나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생각과 목적이 그분의 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9.

6:07

1. 전진하는 지식을 위한 인간의 탐구는 복음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 오늘날의 “정보시대”에서 무슨 함정에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가?
3. 세상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독특하게 하는가?
4.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지혜의 성장은 무슨 방법에서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되는가?
5.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가?

“

”

“(16:24).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 실물교훈, 142.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139-149.

1.

가. 가? 16:24; 10:12.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25.

“기도는 의무이요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열심있는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맡기기에는 우리들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사단의 유혹의 정복을 당하도록 방치될 것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129.

가?

11:1. 가? 11:2-4.

“구주께서는 이 기도문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르쳐주신] 꼭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성을 쓰신 분이로서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이상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감사의 찬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필요를 아뢰고,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약속에 따른 자비를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 산상보훈, 103.

2.

가. 가?
15:7.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換錢)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 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실물교훈, 143.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가 있다.” - 실물교훈, 145.

가 가 가? 3:6-8.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 실물교훈, 144.

가? 18:1-7.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 실물교훈, 145.

3.

가. 가? 5:23, 24; 6:12.

“그대가 그대의 형제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그가 그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대 가운데 심령에 불타는 것은 없는가? 그대의 마음속에 비통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악한 추측이나 그대의 형제들을 그릇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한 은총이나 명예, 최상권에 대한 열망은 없는가? 이런 감정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된다.” - 복음 사역자[1892], 429.

가? 6:14, 15.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 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 산상보훈, 113, 114.

가? 5:9.

“질투로 가득 찬 자는 질투하는 자를 미움으로 바라보며 그 자신을 그의 경쟁자보다 월등한 것을 보여주기를 구한다. 그가 그의 죄를 알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그가 질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다.” - 영문 시조, 1894.25.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모욕해서는 안 된다. 질투와 악한 생각이여! 너희는 불행을 일구어 놓았다! 너희들은 우정과 사랑을 적대감과 증오로 바꾸지 않았는가! 우리는 덜 교만하고, 덜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말아야 한다.” - 교회증언 2권, 566.

4.

가. 가? 66:18 - 20; 18:10 - 14; 2:1 - 4.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응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 정로의 계단, 95.

“그대가 그의 친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아야 할 때 그대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판결을 내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주께서 나의 형제에 대한 나의 관계에서 나에게 대해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경건한 태도로 묻도록 하자.” - 리뷰 앤드 헤럴드, 1892.8.16.

가? 2:13; 4:31, 32.

가? 11:5 - 8, 13; 5:14, 15.

“주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 실물교훈, 143.

가? 4:2, 3.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 실물교훈, 142.

5.

가. 가? 6:10.

“그대의 이기적 관심이 그대 자신의 가족이나 교회에 있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대의 편협함을 동정하시기를 빈다! 그대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치지 않는 열심과 멀리 미치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진리를 결코 들어보지도 못한 수백만의 남녀들과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께 어떤 책임감도 갖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다.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는 그대는 진리의 횃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이려고 돕지도 않은 채 그대들의 가정에서 안락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그토록 적게 하면서 그대들 자신과 그대의 가족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대들의 손을 들어올릴 수 있는가?” - SDA 선교의 역사적 고찰, 287, 288.

가 가 가? 4:16.

“사랑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참된 성화이다. 빛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친절하고 애정있고 명백한 사랑을 통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것이다.” - 청년 지도자, 1894.11.8.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 실물교훈, 149.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그 구하는 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서 계시다” - 실물교훈, 147.

6:14

1. 무슨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2. 응답받는 기도를 막는 몇 가지 장애물은 무엇인가?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왜 깊이 숙고하시는가?
4. 주께서는 무슨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고 계시는가?
5. 예언의 신은 참된 성화로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2008 3 1



에로드 자치시는 코이바토레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카우베리강 제방을 끼고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인도 최남단인 타밀나두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또한 이곳은 거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발 1,600m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의 이름의 뿌리인 에로드는 두 물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일지도 모른다.

인도의 다른 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힌두교가 5백5십만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79명의 교인들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이 성만찬 예식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K. I. 라자 세카 형제의 도움으로 당신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으며 에로드 대회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2,000년에 적은 토지를 구입하였다. 집은 사이클론[대폭풍]으로 손상을 입었다. 예배당과 대회 사무실, 그리고 목사 사택이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들의 기도와 재정적 도움이 이 도시에서 주님을 위한 기념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며 그대들과 그대들의 모든 연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빈다.

-남인도 연합회 형제자매들로부터-

“

”(64:8).

“교회는 일어나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교인은 교육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별을 전할 수 있다.” -교회증언 9권, 2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19-26.

2월 24일

1.

가. 가
가? 64:8; 13:6.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질그릇이 되어야 하며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한다면 주께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존귀한 그릇으로 그대를 만드실 것이다. 거룩한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길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보다 더욱 높은 근원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 부요하도록 만들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없다고 느낄 것 같으면 그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영문시조, 1892.5.16.

가? 23:10.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계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치 없는 돌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던져 넣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일을 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 일꾼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끌리어지면 된다.” -치료봉사, 471, 472.

2. 가

가. 가 가? 9:10.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 치료봉사, 472, 473.

가? 3:23, 24.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생각에 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우리가 노력할 때 그 일들이 마치 큰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적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 오늘의 의무가 성실하게 행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갈망하지 말라. 평범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대의 책임이 엄숙한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부여하신 모든 능력과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겸손한 재능을 활용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자에게와 마찬가지로 가장 비천한 자에게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지정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 획득해야 할 첫째 일은 그대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대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지식의 십분의 일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라. 그대의 특권을 얼마나 헛되게 사용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얼마나 많이 빚을 지고 있는지 알라.” - 리뷰 앤드 헤럴드, 1888.5.1.

가? 가? 4:12, 13.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는 동안에는 새장 안에 있는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 주고자 애쓰고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새는 노래의 한 절 한 절씩을 여기 저기에서 떼어내어 짹짹하게 부르는 흉내만을 낼지언정 결코 단독으로 완전한 곡조를 다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새장을 열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면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어두움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 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치료봉사, 472.

3.

가. 가? 14:12.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불만이나 불평을 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치있는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다. 그대가 가진 능력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대에게 놓여져 있는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만일 그대가 더욱 큰 유용성을 바라다면 일하러 나가서 그대가 한탄하는 일들을 행하라.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러 나아가라. 그리고 남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롬 14:12). 그대의 생각과 말은 ‘오! 내가 더욱 큰 일을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러 저러한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의무를 수행하라. 그대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질 바로 그 장소에서 그대에게 위탁된 선물을 가지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라. ...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선하거나 혹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대의 재능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다. 온유와 겸손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대의 선물을 사용하라.” - 리뷰 앤드 헤럴드, 1888.5.1.

가? 8: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신다. 그는 저희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도록 계획된 위치로 저들을 인도하신다. 어떤 이들은 어떤 점에서는 인내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실패한다. 진진하는 매 단계마다, 마음은 시련을 당하고 좀더 접근하기를 힘쓴다. 만일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발견하였다면, 저들은 승리의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장소이다. 각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 저희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임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저희들이 진리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긴다면 저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내어쫓김을 당할 것이다. 만일 거룩한 진리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로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들의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그들을 심령이 고상하고 너그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은 그들 자신이 악한 충동에 굴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연결된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기회를 가질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0.4.8.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나 두뇌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이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162.

4.

가. 가 가? 1:18 - 31.

“어떤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등급 학교교육은 거룩하신 교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학교 교육이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 때에 크게 요구되는 것이며 누구나 이런 종류의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훈련아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있다.

“모세는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는 광범위한 교육을 받았으나 그 교육의 대부분을 고쳐 배워야 할 것으로 혹은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양떼와 어린 양을 돌보는 가운데 애굽의 교육에서 얻은 인상을 깨끗이 지워버려야만 하였다. 만약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격리되고 저의 마음이 온유하게 될 때까지 어떤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많은 충실한 목자들을 배출하였을 것이다. 저들은 저들 자신의 재간을 뽐내거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 대신에 얻은 고등교육의 지혜를 자랑해 보이려고 애쓰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60.

가? 2:19 -

21.

“우리들의 수고에 자기중심 사상이 섞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진리가 우리들 자신의 심령을 거룩케 하지 못하며 순화(純化)시키지 못하고 고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사상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쓰실 그릇이 못됨을 증거할 것이다. 오직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복스러운 교제를 통해서만 말과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더불어 향기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제 가운데는 살피지 않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고귀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께서는 깨어 살피도록 분부하셨다. 자신을 살피는 일을 단 한 순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을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405.

“어떤 종류의 그릇이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가? 빈 그릇이다.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비울 때에 우리는 사용하기에 준비가 된다. 자신에 대해 비어있는가? 이기적인 계획에서 치료함을 받았는가? 오, 자신이 점령되지 않게 하라.” - 능력을 받으라, 111.

5.

가. 가? 5:14.

“세상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자원하여 책임을 지고, 난관을 헤쳐 나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서 품성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청년들이 배우게 한다.” - 교육, 295.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충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 실물교훈, 146.

“끝나가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복음으로 점령해야 할 광대한 지역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조력자들을 일반인 중에서 모아야 한다. 밭에서, 포도원에서, 공장에서, 노소를 물론하고 부르심을 받아 구세주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자격이 있다고 보신다.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마음을 두고 배우기를 계속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일꾼으로서 그를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손이 비록 거칠고 미숙할지라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서서 그들을 도우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은 고난 중에 특권을, 혼란 중에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 교육, 269, 270.

6:20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다루기에 쉬운 유일한 진흙이 되는가?
2. 매일의 고된 일에 직면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3. 무슨 일상적인 시험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가?
4. 모세는 어떻게 더욱 가치 있는 그릇으로 재창조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5.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적은 그릇들과 왜 함께 일하시는가?

“ 가 ,

(62:1).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빛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어둔 곳을 널리 비춰야 한다.” -교회증언 9권, 24.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26-29.
교회증언 6권, 421-439.

3월 2일

1.

가. 가?

54:1, 2.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빛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어둔 곳을 널리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시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함으로써 구주와 협력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남녀들은 세속적인 이득과 쾌락을 찾는 데 몰두되어 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시간을 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다.” -교회증언 9권, 24.

가?

54:3, 4.

“명백한 증거들이 끝이 가까움을 가리키고 있다. 경고는 분명한 음조로 주어져야 한다.” -교회증언 9권, 25.

2.

가. 가? 56:8; 62:1, 2.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은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데 사용되는 대신에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바쳐지고 한다. 우리 교회들에서 마땅히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사람들이 마치 병든 양들처럼 돌봄을 받고 있다. 만일 우리 백성들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봉사했다라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수석 목자장처럼 섬김을 받았을 것이며 수천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백성들의 주위를 맴도는 대신에 각 영혼으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러 나가도록 하라. 각 영혼으로 수고하게 하며 우리 교회들을 방문하지 말고 교회들이 없는 땅의 어두운 곳들을 방문하게 하라.

“이럴 때에 진리의 깃발이 결코 높이 들림 받지 않은 곳들에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일찍이 전에 없었던 동일한 일의 분량의 결과로서 거듭나게 되었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6.25.

“평화의 왕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관들과 경쟁할 기관들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면서 보여 준 견인불발의 인내와 지지치 않는 열성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에 대하여 그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교회증언 9권, 25.

. 가 가? 21:28;
13:34.

“그대들이 교회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설교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해 주는 일이다. 활동하게 되던 기력이 없던 자가 풀이 죽은 상태에서 금방 소생하게 되며,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워지며, 모든 영혼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저들은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주님 안에서 확실한 도움을 받 견하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356.

“각 기관이 작동되어야 하며 교회들을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오류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6.25.

3.

가. 가
가? 3:2; 2:15.

“진리를 아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과 아직도 그리스도로 부양받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세상의 도시들에 진리를 전하는데 더 좋은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자원하여 이 도시들로 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어느 누가 자원하여 집집을 방문하면서 담대하게 손을 뻗힐 것이며 ‘우리가 그대를 보내지 않는 한 그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인가? 만일 우리 교회들에 쏟았던 수고의 십분의 일이 무지로 멸망하여가고 있는 자들에게 바쳐졌더라면 오래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6.11.

“영혼들이 회개하면 즉시 그들을 활동시키라. 저들이 각자의 능력을 따라 일할 때에 더욱 믿음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대되는 영향을 받을 때에 믿음이 확고해진다. 빛이 저희 마음에 비쳐질 때 저들로 그 빛의 광선을 발산케 하라. 새로 회개한 자들에게 저들이 그리스도와 동료가 되며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에 주님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아무도 논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며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복음전도, 355, 356.

가? 3:15.

“비록 교회가 가난하고 교육이 없는 무명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저들의 감화력은 이 때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감동을 줄 것이며 저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들을 신뢰한다면 저들은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빛을 발한다면 저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저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저희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비록 가난하고 무식할지라도 만일 저들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치실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65.

4.

가. 가
가? 6:23.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만일 그대들이 주어진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대들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결국 어두움에 싸이게 될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66.

가?

33:7-9.

“우리의 모든 도시들에는 그들에게 전할 진리를 갖지 못하고 주님의 속히 오심에 대한 경고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 기별자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지 않는 한 이 백성들은 초청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들의 죄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사업은 본격적으로 전진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정진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문이 열리는 대로, 생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야 하며 진리에 대한 반대가 동일하게 시작될 것이다. 선교사에게 열려 있는 문은 또한 진리의 반대자에게도 열려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제시된다면 청중들은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2.

가? 9:4.

“무엇이 우리의 책임에 부합하도록 행해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제시된 기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열심과 겸손으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하나님과 격투할 결심이 있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2.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날이 저물기 전인 바로 지금이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92.

5.

가.

가? 3:5, 6; 14:26.

“많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손과 심령을 갖고 있으나 그들의 에너지들을 그 사업에 바치는데 낙심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찾으려 결국 그들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의 재능들을 잠재우도록 허락한다. 만일 그들이 그 재능들을 사용하도록 격려를 받았더라면 사업은 전진했을 것이다... 주님을 위한 유능한 사역자들로 발전할 기회를 가져야 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 교회들에는 비밀결사들이 없어야 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 23:8]. 목사의 사업은 또한 평신도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심령은 심령에 붙들어 매어져야 하며 모두가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는 각자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문을 열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모두가 실천적인 경험에 의해 그리스도의 방식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교회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로 사업에 관한 관심에 매진하여 목사들과 사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세우는데 돕도록 하라. 비교해야 할 재능의 수를 헤아려서는 안 된다. 만일 사람이 믿음을 행사한다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것이며 그는 교육을 적게 받았거나 또한 연약한 사람으로 헤아려 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그의 지정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남김없이 성령의 감화에 굴복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 받으실 만한 봉사를 행하는데 최선의 자격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성령께서 지정하시는 일을 수행할 자유를 갖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겸손한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9.

6:27

- 1.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 2. 영적 소생함을 받지 못한 회중이 어떻게 소생함을 받을 수 있는가?
- 3. 무슨 단순하고 논쟁이 되지 않는 주제가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 4.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왜 점점 증가하는 도전이 있어야 하는가?
- 5.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위험에 있게 되는가?

“ 가

(15:1-3).

“만일 세상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며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것이 능력이 되지 않을 것인가?” -설교와 대화 2권, 9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31-42, 49-51.
교회증언 6권, 445-453.

1.

가.

가? 21:34, 35.

“우리는 멸망하고 있는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갖고 분주히 전해야 하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마음에 심을 진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세상은 매우 엄숙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혼들은 무엇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될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될 것인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94.10.9.

가 가? 12:15-21.

“과거에 많은 일들이 행해지지 못해왔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크게 확신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들이 자만하도록 유혹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4.10.9.

2.

가. 가, 가? 2:49.

“아주 등한히 여김을 받는 마을과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백성들은 한 장소로 몰려옴으로써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묘목장 안에 있는 나무들이 뻗뻗하게 함께 모일 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없다. 뻗뻗하게 심겨진 그대의 묘목장에서 나무들을 옮겨 심으라.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 너무 많은 특권들이 집중되는 데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여지를 주라. 도움을 받고자 서로를 의지하지 않을 많은 지역에 그대의 식물(植物)을 심으라.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여지를 주라. 이것이 주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 -교회증언 8권, 147.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 몰려 살거나 함께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 위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빛으로서 나라 전역과 마을과 도시와 촌락으로 흩어지도록 계획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그들의 믿음과 행실로 구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들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업을 성취할 수가 있다. 아무도 단순한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가정들이 생계의 길이 열려 있는 곳으로 한 지역에 한 가정 혹은 두 가정씩 들어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들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을 위해 일할 부담을 느껴야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길을 연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보급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열고, 그들의 이웃과 친해져서 그들을 이 집회에 오도록 초청할 수가 있다.” -교회증언 8권, 244, 245.

가 가 가? 63:3 (); 102:7.

“일꾼들은 하나님 안에 홀로 서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활동해야 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있는 동안,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 그대의 몫이 되게 하라. 그대들의 이웃을 은혜의 보좌 앞에 제시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에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라.” -교회증언 8권, 245.

3.

가. 가? 14:33.

“영적 흑암에 싸여 있는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을 통하여 비추게 하라. 그리하면 큰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사업의 규모가 도저히 목사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없기까지는 합회의 자금을 의존하지 말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일을 착수하도록 하라.

“[성경연구집회나] 그와 비슷한 집회들을 할 때에 크고 자리 잡힌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말 것이다. 그들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에 진리의 지식을 퍼뜨리고 그 사업이 알려지도록 하라. 이것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리스도께서 왕궁을 버리신 것은 편한 일이었는가? 그분이 명예와 영광과 통수권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자기를 낮추신 것은 편한 일이었는가? 그분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맡겨 주신 우리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지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대가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영혼이 이젠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사단은 그 영혼의 발 앞에 울무를 만들어 놓고 있다. 내일이면 그는 하나님의 대 원수의 계획을 실천하게 될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루라도 지체하겠는가? 왜 즉시 일을 착수하지 않는가?” -교회증언 6권, 442, 443.

가? 3:27.

“나는 젊은이들, 특별히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젊은이들이 자아부정의 교훈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위하여 더 큰 희생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진리를 더 크게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생애를 정결케 해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더욱 귀중하고 신성하게 간직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짐을 지거나 그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느끼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그런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 한, 그들은 불멸의 유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교회증언 1권, 177, 178.

4.

가. 가? 20:18, 20, 33-35.

“많은 지역에서 자급 전도자들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 지식은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자급 전도자로서였다...

“[행 20:18, 20, 33-35 참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고무되었을 것 같으면 유사한 방법으로 선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전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라. 그들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병자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서 전도자로서 자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처럼 어떤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그들은 복된 경험을 얻는다.” -치료봉사, 154, 155.

4:11, 12.

가? 15:1 -3; 10:37, 38.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흑암과 오류가 덮여 있는 지역사회로 들어가고, 외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만일 그런 가정들이 세상의 어두운 장소, 곧 영적 흑암이 덮여 있는 곳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을 통하여 비추게 되었을 것 같으면 참으로 고귀한 사업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자아 희생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들이 이룰 수 있었던 사업은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많은 무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상 혜택을 위하여, 혹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불안정한 지역으로 들어가 희생과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즐거이 옮겨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치료봉사, 155, 156.

5.

가. 가 가? 126:6; 58:8.

“[사 58:8 참조.]...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이 약속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대의 믿음 부족, 영성 부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부족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숙고하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진진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면서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대들 각자가 모두 살아 있는 선교사라면 이 시대를 위한 이 기별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신속히 전파되었을 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나는 그대들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교회에게 열렬히 기도하라고 호소한다. 그대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일꾼들인가? 만일 아니라면 왜 아닌가? 그대는 언제 하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가?” -교회증언 6권, 438.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고 극기할 자원봉사자를 부르신다.” -영문시조, 1899.6.21.

가

가 가?

12:33 -40.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이며 순례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억누르라고 명하시는 욕망을 만족케 하는 일에 우리의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하라. 차라리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 바른 모본을 제시하라. 우리의 소원을 제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적절히 나타내도록 하라... 죽어 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나태가 죄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증언 6권, 452.

6:33

1. 각사람이 이 시대에 바쁘게 활동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의 첫 번째 초점이 되어야 하는가?
2.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대한 관심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가?
3. 가능한 이 세상에서의 생애의 초기에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함을 주어야 하는가?
4. 바울은 역사의 이 위기의 때에 왜 우리를 위한 감동적인 역할의 본이 되고 있는가?
5. 우리가 더 어두운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다 해도 어떻게 그곳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

“ 가
 (12:15).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백성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 보이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내세에서만 받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받기 시작한다.” -산상보훈, 34.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43-48.

3월 16일

1.
 가.
 가? 1:9; 10:1-3.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교회증언 8권, 16.

“밤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 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 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교회증언 9권, 126.

“문서 전도자들은 우리의 서적을 판매하는 일에 고무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빛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많은 사람들이 문서 전도자가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출판사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의 수도원을 떠나 생활 대책이 없던 수도승들이 각국에 돌아다니며 루터의 저술을 판매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그 책들이 신속히 보급되었다. 그 당시에는 문서 전도 사업이 빛을 전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으며, 오늘날도 그것이 입증될 것이다.” -E.G. 화잇 자서전, 305.

2.

가. 가? 62:12; 6:4.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진리의 위탁자로 삼으신 것은 진리를 그대로 간직해 두도록 하심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충실한 청지기로서 집집을 방문해야 한다. 그대가 일하고, 고안하고, 계획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하여 그대의 머리에 떠오를 것이며, 그대의 지력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이 증가될 것이다. 미지근하고 게으른 의무 수행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도시의 폐허에 묻힌 보화를 찾아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언제든지 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방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떤 사람은 관심을 일으키면서 조용히 일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5.6.11.

. 가 가 가?
 6:10-13.

“사단은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책략을 꾸밀 것이며 진리로부터 사람들의 귀를 막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한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활동할 때에 일반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가난한 자들을 등한히 하지 말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5.6.11.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곡해하고 그 특성을 공격할 것이며 성경 진리를 옹호하는 믿음과 교훈들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경에 관한 관심을 전환시킬 것이다. 전시회, 게임, 경마나 다른 여러 가지 오락이 범람할 것이다. 아래에서 온 강렬한 세력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대적하기 위하여 소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80.

. 가 가? 3:12-15.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교사들이 점점 악하여져서 스스로 속고 또한 남을 속인다는 것을 각오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것보다 보다 더 큰 반대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62.

3.

가. 가 가?

2:12, 13.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관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구원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 것이라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빈곤과 불안들을 참아야 할 것인가? 오! 그렇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긴다고 간주되는 죄인들이 이러한 아픔들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우리는 그들도 깊이 당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가끔 알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들이 괴로운 때가 있으며 인기 없는 진리를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백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고 저희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길은 거칠게 보이며 저들은 많은 희생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전혀 아무 희생도 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저들이 실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게 된다면 저들은 어떤 희생이 예상되는가? 그리스도를 따르으로써 저들의 어떤 친구 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친척 간에 우의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바라보라. 저희들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실로 큰 변화이다. 구세주의 동료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오류를, 빛을 위해 흑암을, 의를 위해 죄를, 계속될 영예와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보화를 위해, 세상에 썩어질 명성과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겠는가?” - *우리의 높은 부르심*, 201.

가?

5:3, 4; 1:27 - 30.

“믿음을 갖고 일하러 가라. 획득할 수 있는 유익이 되는 모든 점을 붙잡으라. 반대가 아무리 강해도 약해질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붙들고 일하며 기도하라. 깨어 기다리라. 소망을 갖고 신뢰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서는 산을 옮길 수도 있으시다.

“주님의 봉사에 성공을 거두는 교회는 공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인들이 그들의 일하는데 대한 관심을 시들게 해서 안 된다. 하늘의 지적존재자들은 인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원수의 문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하며 바로 요새로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 그대 자신이 실패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이며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다.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인간 대리자와 함께 일하신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2.

4.

가. 가? 6:3.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고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씀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서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08.

가? 42:4.

“무덤 속에 들어 있는 가망 없는 존재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들이 진리의 빛을 듣거나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심이나 흔들림 없이 우리들은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 *교회증언* 6권, 442.

5.

가.

가? 2:10; 3:25.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다.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실한 동정심과 결정적인 도움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생각해야 한다. 이 일에 바쳐진 모든 숨결은 격려하는 말을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힘이 활동을 고무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455, 456.

가? 138:7.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도록 인도한다. 아무도 우리 앞에 놓여진 야곱의 환난의 때에 당할 극심한 시련을 생각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이다. 우리들은 그 때를 위하여서가 아니요 오늘날을 위하여 열성적이고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과 개인적 경험을 갖는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치는 귀중한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얻어야 할 깊고도 산 경험이 있다. 이와같이 우리들은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품성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21.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이를 위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모든 세상적인 보화와 모든 세상적인 매력의 가치를 능가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89.

6:39

1.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자의 비전들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디서 책임을 시작해야 하는가?
2. 진리를 제시할 때 반대에 직면할 것을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가?
3. 교회가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4. 무슨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사업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실례로 감동함을 받아야 하는가?
5.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

가

(5:14).

“만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영광을 전망하고 수고할 때 자신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터의 각 부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4.12.1.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8권, 244-254.
교회증언 9권, 52-60.
각 시대의 대쟁투, 612.

1.

가.

가? 1:26 - 31.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지시하신 국면에서 일하도록 하라.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만 계산할 의무가 있다... 주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 자신의 지혜로 일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나쳐 버리실 것이지만 주께서는 이런 지혜롭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23.

가

가? 19:7 - 11; 5:1, 2.

“책임을 질 인간 대리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불순종하는 하나의 행동도 이 세상의 모든 명예나 왕국들의 보상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럼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도록 사람들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의 가장 매혹적인 유혹들을 제시하고 그의 가장 기만적인 논증들을 사용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4.10.9.

2.

가?

가. 가? 5:14-17.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 번 가 버리면 영원히 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해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분의 율법을 그대의 눈동자처럼 여기라, 그대 자신의 영원한 유익과 그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에 매 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모본에 의하여 다소간 지배를 받는 자들을 다 같이 구원할 수 있다. 이것들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동기이다. 깨어라! 깨어라! 그대는 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리고 그대의 태양은 신속하게 넘어 가고 있다. 그대의 힘은 연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그대의 능력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의 사업에 열렬하고 사심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태양이 아직 하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하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 (요 9:4)기 때문이다.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 오라. 그대의 죄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 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기회를 등한히 하고자 하지 말라.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지금 그대에게 호소하는 자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매 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대의 교만과 불신이 제공된 자비를 더 한층 크게 거절하는 경지로 이끌어 가지 않게 하라. 그대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대는 마침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렘 8:20)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기다리라. 이 시간부터 주님의 소유가 되어 그대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위대한 속죄를 단순하게 신뢰하고자 결심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인생 여정의 나머지 부분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계속될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 교회 증언 5권, 353, 354.

“비록 그대들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서는 그분과 동역자가 되라는 제안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거룩한 지도 아래 들어 오기를 초청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대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교회 증언 6권, 438.

3.

가. 가
가? 3:6-13.

“이것은 내가 그대들이 담당하도록 명한바 있는 기별이다. 그대들은 마치 그대들 개개인들에게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언급한 말씀들을 행해야 한다. 이간과 분열과 의견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단은 사도의 말씀에 요약된 사업을 방해해 왔다. 신도들이 자신을 없애고 사단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안한 계획들을 수행하기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을 것인가! 수년 동안 기별들은 사업이 행해지도록 요점을 분명히 하여 보내져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신도들은 질투와 억측과 흠 찾기로 길을 막으면서 그 성취될 길에 정면으로 반대되게 행해 왔다. 상업적인 거래가 관심들을 빼앗고 구원의 기별 선포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재산을 다 써버렸다. 어떤 일은 행해져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수천 시간들이 보다 잘 행해져 왔어야 한다. 원수는 신도들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하여 사물들의 다양성 속에 침투했다. 시간은 빨리 지나는데 사업은 여전히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직도 여전히 영혼들과 다루고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호소한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기별을 들어야 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6.5.10.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놓여질 때 진리는 영혼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며 예배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단조롭고 생기 없는 기도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얻게 될 것이며 그대가 공언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할 때에 매일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죄인들은 회심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감동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던 어떤 이들이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고 들었노라’고 말한 것처럼 말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했다라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을 보면서도 교인들은 계속 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명예를 환기시킬 것인가? 그들은 물려받은 신뢰를 모아서 현대의 빛에 이용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모든 이들이 깨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산 믿음이며, 세상 앞에 중차대한 문제가 놓여 있으며,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 - 교회 증언 6권, 437.

4. !

가. 가? 25:9; 3:5; 5:7; 6:10, 11, 14-18.

“ .가 가 . 가가 가 가? 가
“ [] , ...
“ ”- 6 ,

443, 444.

가? 119:46; 10:18.

“ 가

.20 1 가 가 .

“ .

“ ... 가

가 . 가

“ 가 ...
“ 가 ... ”-
, 355.

5.

가. 가

가? 13:5, 6; 3:10, 11.

“ 가 가
“ ”- ,296.

9:16; 5:14 (). 20:9;

“ ,

“ 가 가 ,1895.7.23.

“ 가 가 ‘ , !’
“ ”- E.G. ,375.

6:45

1. 가?
2. 가?
3. 가?
4. 가?
- 5.

첫째 안식일 연금



1월 5일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타운
(4페이지 참조)

2월 2일
구호봉사부
(25페이지 참조)



3월 1일
인도의
에로드 대회
(46페이지 참조)